

獨占理論에 대한 힐퍼딩의 貢獻⁽¹⁾

金 秀 行

힐퍼딩은 독점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금융자본』에서 은행이 창업자이득을 얻기 위해 기업들의 독점적 결합을 촉진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독점자본의 최고형태로서 금융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했다. 그러나 그의 금융자본은 개념상으로 은행자본과 구별되기 어렵고, 금융자본의 가치증식방법도 은행자본의 가치증식방법과 구별되기 어렵다. 그런데 레닌은 힐퍼딩의 이론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독점과 금융자본을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구성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힐퍼딩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레닌의 이론과 비교함으로써, 독점과 금융자본의 개념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1. 머 리 말

마르크스주의 역사에서 독점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전개되었다.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독점이 現實의 資本主義에선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독점의 형성과정, 독점의 형태와 내용, 독점자본의 가치증식방법, 독점의 역사적 의의 등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에 관한 학설사에서 힐퍼딩(Rudolf Hilferding: 1877~1941)의 『금융자본』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 하면 『금융자본』은 1910년에 발간되면서 독점을 가장 먼저 이론적으로 해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이후 모든 독점 논의의 핵심이 되는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점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힐퍼딩의 『금융자본』을 토대로 전개되었다.

이 글에서는 『금융자본』의 獨占理論을 소개하면서, 그 뒤의 독점이론가들이 힐퍼딩의 분석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용했는가를 알아 보려고 한다. 더욱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 독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 중 독점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생각되는 레닌(1870~1924)의 『제국주의』(1917년 출간)와 비교하면서 『금융자본』의 독점 이론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1) 이 논문은 1993년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지원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2. 産業과 銀行의 關係

힐퍼딩은 20세기 초 독일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을 獨占的인 銀行이 獨占的인 産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따라서 『금융자본』은 우선 어떻게 은행이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이러한 지배가 경제 및 사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은행은 화폐를 거래하고 있으므로, 힐퍼딩은 ‘貨幣와 信用’에 관한 논의로부터 은행과 산업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제 1 편). 힐퍼딩이 貨幣의 機能 중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支拂手段의 기능과 貨幣資本의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들을 근거로 銀行의 業務를 유통신용(상업신용 또는 지불신용)의 제공, 자본신용(투자신용)의 공급, 투자은행 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적인 자본가들(이 개념은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이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매개로 상호간에 제공하는 신용이 ‘流通信用’인데(『금융자본』(p. 104)),⁽²⁾ 이 유통신용에서는 화폐가 어음의 결제시에 지불수단으로서 등장할 뿐이다. 그런데 은행은 생산적인 자본가들의 구좌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발행한 어음들을 집중시켜 차액만을 결제함으로써 현금의 유통을 크게 절약한다. 또한 은행은 어음을 매입하거나 인수함으로써 사적인 지불약속을 은행 자신의 신용으로 대체하며, 이에 따라 은행은 유통신용을 공급하게 된다. 이 경우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어음의 유통이 더욱 확대하며, 이에 따라 현금의 유통은 더욱 절약된다. 그러나 경기순환의 특정한 국면에서는, 특히 상품의 판매가 지체되는 공황 직전에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하게 된다. 왜냐 하면, 생산적인 자본가들이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부도를 우려해 어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은행이 어음의 매입과 인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은행은 사회의 유희화폐를 예금으로 수집해 생산적인 자본가들에게 대부함으로써 資本信用을 제공한다. 그러나 산업의 규모가 거대화하고, 내용연수가 긴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면, 은행이 산업에 제공하는 자본신용은 거대화하고 장기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은행자본이 산업에 대규모로 장기간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은행과 산업 사이의 차별성을 없애게 되고, 은행은 ‘화폐자본이라는 유동성있고 즉각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의 자본을 언제나 가지고’(『금융자본』(p. 124))

(2) 여기서 인용하는 『금융자본』은 김수행·김진엽 공역(1994)이며, ()안의 페이지 수도 이 번역서의 것을 나타낸다.

있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산업의 고정자본에 투자된 은행자본을 언제나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고정자본에 묶여 있는 은행자본을 ‘流動化’(mobilisation)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은행은 산업의 고정자본 건설을 위한 자본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사실상 힐퍼딩의 독점 논의에서 ‘資本의 流動化’(제 2편)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 부분의 하나다.

그런데 자본의 유동화는 산업이 株式會社制度를 채택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 자본으로 고정자본의 건설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주식소유자는 주식을 언제나 주식시장에서 화폐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은행은 주식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고정자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주식을 팔아 언제나 화폐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행의 投資銀行業務다.

은행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면, 자본은 화폐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은행자본의 적절한 구성부분이 되지 못한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자본의 유동화—즉 자본을 의제자본(fictitious capital)(또는 이윤에 대한 청구권을 자본화한 수익증서)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전환과정은 수익증서 시장의 성장을 동반하며 수익증서는 언제라도 화폐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익증서는 또다시 은행자본의 구성부분이 될 수 있다[『금융자본』(p. 178)].

은행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유통신용과 자본신용의 제공, 그리고 투자은행 업무를 통해 산업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 힐퍼딩은 특히 투자은행 업무를 중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은 주식에 투자해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고 산업을 자기의 의도대로 재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의 발행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대규모의 創業者利得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獨占의 形成

은행이 주식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은행은 주식소유를 통해 산업을 지배하지만, 그렇다고 은행이 모든 자본을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주식을 계속적으로 소유한다면, 은행은 산업자본가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주식의 매매를 통해 매매 차익을 획득하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힐퍼딩은 은행이 ‘創業者利得’(promoter's profit)의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창업자이득은 주식의 발행가격(또는 액면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차액을 가리키는데,

주식회사 자신이 스스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이 창업자이득을 수취하며, 은행이 주식회사를 대신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 창업자이득을 수취하게 된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초기에는 개개의 자본가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자본을 모으지만, 개개의 자본이 이미 은행에 집적·집중되어 있게 되면, 주식회사는 은행을 매개로 화폐시장에 호소하게 된다”[『금융자본』(p. 166)]. 결국 은행은 주식의 발행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창업자이득을 독차지한다.

은행은 주식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에 제공하고, 그 뒤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고객들에게 팔아 화폐를 회수하는데, 이 때 창업자이득을 규정하는 것은 株式의 市場價格이다. 주식의 시장가격이 상승할수록 그만큼 더 큰 창업자이득을 얻는다. 그런데 주식의 시장가격은 주식의 소유로부터 얻으리라고 예상되는 장래의 모든 수익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제 1 차 연도, 제 2 차 연도, 제 3 차 연도, 그리고 제 n 차 연도에 얻으리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각각 Y_1, Y_2, Y_3 그리고 Y_n 이라고 하고,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그리고 제 n 차 연도의 이자율을 각각 i_1, i_2, i_3, i_n 이라고 한다면, 주식의 시장가격은 $Y_1/(1+i_1) + Y_2/(1+i_2)^2 + Y_3/(1+i_3)^3 + \dots + Y_n/(1+i_n)^n$ 과 같게 될 것이다.⁽³⁾ 이처럼 주식회사의 將來收益性은 주식가격을 규정하고, 주식가격은 창업자이득을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큰 창업자이득을 노리는 은행은 주식회사의 장래 수익성을 높여야 할 운명에 있다.

힐퍼딩은 은행의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은행이 주식회사들 사이의 競爭을 制限하고 그들을 結合시켜 독점을 형성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은행은 주식의 소유, 유통신용과 자본신용의 제공을 통해 동종 산업이나 이종 산업의 여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企業結合⁽⁴⁾을 추진하게 된다. 이리하여 산업의 독점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힐퍼딩의 논리에서 창업자이득은 독점의 성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이것(창업자이득—인용자)의 획득이 은행에 대해서는 독점화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를 준다. 둘째 창업자이득의 일부가 반항적이지만 중요한 생산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매수가격을 제의함으로써 자기들의 공장을 판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카르텔의 성립을 촉진하게 된다[『금융자본』(p. 320)].

(3) 이 경우 만약 $Y_1=Y_2=Y_3=\dots=Y_n$ 이고, $i_1=i_2=i_3=\dots=i_n$ 이라면, 주식의 시장가격은 연간 수익을 연간 이자율로 나눈 것과 같게 된다.

(4) 힐퍼딩은 기업결합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첫째는 상향적·하향적·혼합적 기업결합이고, 둘째는 기업협동(consortium)과 기업합병(merger)이며, 셋째는 부분적·독점적 기업결합인데, 독점적 기업협동이 카르텔이고 독점적 기업합병이 트리스트이며, 카르텔 중 중앙판매 부서를 설치하는 형태를 신디케이트라고 부른다. 넷째는 동종결합과 이종결합이다. [『금융자본』(pp. 276~281)].

그런데 힐퍼딩은 독점을 형성하게 되는 또 하나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利潤率의 均等化를 阻止하는 장애물이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힐퍼딩은 평균 이하의 이윤율을 가진 산업부문에 기업결합 또는 독점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왜 이윤율의 均等化가 저지되는가? 첫째 고정자본의 거대한 팽창은 한 번 이루어진 투자자의 生産部門間 移轉을 점점 더 곤란하게 하고, 둘째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資本의 最小規模가 점점 더 증대하므로 새로운 기업의 설립은 생산량을 지나치게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주식의 발달은 평균 이상의 이윤율을 가진 부문으로 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이윤율의 均等化를 촉진시키지만, 거액의 고정자본을 가지면서 평균 이하의 이윤율을 올리는 부문으로부터 자본이 유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한다[『금융자본』(pp. 259~268)].

특히 이러한 이윤율 均等化에 대한 장애물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은 重工業部門이라고 힐퍼딩은 말하면서 중공업부문의 이윤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발전한 산업에서는 경쟁이 소기업을 매우 급속히 도태시켰거나 소기업이 처음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대기업이 지배적일 뿐 아니라 이들 자본집약적인 대기업은 서로 점점 대등하게 된다.……경쟁은 강자와 약자 사이의 투쟁이 아니며, 따라서 이 경쟁에서 약자가 패배함으로써 이 부문의 자본 과잉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은 대등한 기업들 사이의 투쟁이며, 따라서 짧은 시간에 승부가 판가름나지 않고 모든 경쟁자들에게 동등한 희생을 부과하게 된다. 대기업들은 모두 이 투쟁에서 견뎌내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업에 투자된 엄청난 자본 전체가 가치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산업분야에서는 자본 폐기에 의해 사태를 완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기업의 설립은 (처음부터 큰 생산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이들 분야에서는 이윤율이 비교적 장기에 걸쳐 평균보다 낮은 상태가 매우 쉽게 조성되며, 이 상태는 평균이윤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더 위험해진다[『금융자본』(pp. 266~267)].

다시 말해 거액의 고정자본을 가진 중공업은 경쟁과 이에 따른 이윤율 저하에 의해 특히 피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서로 결합해 독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힐퍼딩은 採取産業과 加工産業 사이에 경기순환에 따라 이윤율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이윤율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채취산업과 가공산업 사이의 기업결합이라고 말한다[『금융자본』(pp. 273~277)]. 물론 기업결합은 이윤율의 차이를 극복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익도 준다.

첫째로 기업결합은 경기순환상의 변동을 제거해 보다 안정적인 이윤율을 보장한다. 둘째로 기업결합은 중간상인의 개입을 없앤다. 셋째로 그것은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단독기업에 비해 초과이윤을 획득하도록 해준다. 넷째 그것은 (원료가격

의 저하가 완성품가격의 저하보다 급속하지 않은) 심각한 불황기 동안 단독기업에 비해 결합기업에게 경쟁상의 우위를 강화시켜 준다[『금융자본』(p. 277)].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자본』에는 독점이 형성되는 두 가지 경로가 나란히 묘사되고 있다. 즉 하나는 은행이 창업자이득을 얻기 위해 기업들을 결합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공업부문의 대기업들이 이윤율의 저하를 저지하기 위해 또는 이윤율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경로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 산업자본뿐 아니라 은행자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에 의해 쉽사리 통일될 수 있다. 그러나 힐퍼딩의 전체 논의에서는 은행이 산업의 독점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역할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것은 뒤에서 보게 될 그의 ‘金融資本’ 개념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레닌은 『제국주의』에서 자유경쟁이 生産의 集積과 集中을 낳고, 이러한 집적과 집중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자유경쟁이 독점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獨占化傾向은 산업뿐 아니라 은행업에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집적과 집중 그 자체는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독점을 야기한다. 왜냐 하면 십여 개의 거대기업들은 쉽게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경쟁의 제한(즉 독점화 경향)은 기업의 거대한 규모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Lenin(1917, p. 17)].⁽⁵⁾

은행업이 발달해 소수의 업체로 집적·집중함에 따라, 은행은 겸허한 중개자로부터 강력한 독점(모든 자본가와 소규모 기업가의 모든 화폐자본을 총괄하며, 또한 한 나라나 다수의 나라의 생산수단과 원료 공급처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강력한 독점)으로 성장한다[Lenin(1917, pp. 29~30)].

결국 레닌은 독점의 형성을 설명함에 있어 資本一般 次元의 자유경쟁과 집적·집중을 토대로 삼고 있으며, 은행이 산업을 지배한다든가 중공업부문의 이윤율이 낮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레닌은 산업과 은행업 모두에서 독점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最高의 獨占形態로서 독점적 산업자본과 독점적 은행자본의 융합을 개념화할 수 있게 되었다.

4. 金融資本의 概念

힐퍼딩은 『금융자본』의 ‘서문’에서 ‘금융자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 Lenin(1917)의 인용페이지는 1975년 Prograss Publishers판의 것을 나타낸다.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집적·집중과정인데, 이 과정은 한편에서는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형성을 통해 ‘자유경쟁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더욱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본은 이 관련을 통해 금융자본의 형태(자본의 최고의, 그리고 가장 추상적인 현상 형태)를 취하게 된다[『금융자본』(p. 15)].

위의 문장에서는 금융자본이 독점적인 은행자본과 독점적인 산업자본의 융합 또는 유착이라는 규정이 엿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애매하게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 곳에서도 금융자본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많은 부분에서 힐퍼딩은 금융자본을 은행자본 또는 화폐자본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몇몇의 예외적인 부분에서는 금융자본을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으로 묘사하고 있다.

『금융자본』에서 ‘금융자본’에 대해 가장 자세히 설명한 제 14장(資本主義的 獨占과 銀行資本의 金融資本으로의 轉換)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산업의 은행에 대한 의존은 소유관계의 결과이다. 산업의 자본 가운데 이것을 사용하는 산업가들의 것이 아닌 부분이 끊임없이 증대하고 있다. 산업가들은 (이 자본의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이 자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은행은 자기가 가진 자본의 점점 더 큰 부분을 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리하여 성격상 점점 더 산업자본가로 되어 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은행자본(즉 화폐형태의 자본)을 나는 금융자본이라고 부른다. 은행자본의 소유자들에게는 은행자본은 항상 화폐형태를 유지하는데, 왜냐 하면 은행자본은 그들에 의해 화폐자본, 이자 낚는 자본의 형태로 투자되었고, 언제라도 화폐자본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에 투하된 자본의 대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산업의 생산자본(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전환되어 있으며, 생산과정에 고정되어 있다. 산업에서 사용하는 자본의 점점 더 큰 부분은 금융자본(요컨대 은행에 맡겨져 있으면서 산업자본가가 사용하는 자본)이다[『금융자본』(p. 322)].

이 부분은 은행과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매우 명백해 진다. 즉 은행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식회사에게 화폐자본(즉 은행자본)을 제공하고, 그 뒤 은행은 현금(화폐자본)이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고객에게 팔아 현금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식회사는 주식판매대금으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해 산업자본으로 기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화폐자본과 생산자본 이외의 새로운 形態의 資本이 나타나지 않으며, 금융자본은 銀行資本 또는 貨幣資本을 가리킬 뿐이다.

(나) 자본주의의 발생기에는 화폐자본이 고리대자본과 상인자본의 형태로 자본의 축적에 있어 그리고 수공업적 생산을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전환시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했다. 그러나 그 뒤 이자취득 자본가에 대해 ‘생산적인’ 자본가, 즉 이윤취득 자본가(상업자본가와 산업자본가)가 반항하기 시작한다. 고리대자본은 산업자본에 종속하게 된다.……고리대자본은 은행자본으로서는 생산적인 자본가들 사이의 신용활동을 매개한다. 자본의 유동화와 신용의 끊임없는 증대는 점차로 화폐자본가의 지위를 완전히 변화시킨다. 은행의 힘이 증대하며, 은행은 산업의 창립자로 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지배자로 되는데, 은행은 산업의 이윤을 금융자본의 지위에서 강탈한다. 이것은 과거에 고리대금업자가 ‘이자’의 형태로 농민의 생산물과 영주의 지대를 빼앗은 것과 꼭 마찬가지로다. 헤겔학파가 말하는 부정의 부정에 의하면, 금융자본은 고리대자본의 부정이었고, 은행자본은 금융자본에 의해 부정된다. 금융자본은 고리대자본과 은행자본의 종합이며, 경제적 발전의 무한히 높은 단계에서 사회적 생산의 과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금융자본』(p. 323)].

이 부분도 화폐자본이 歷史的으로 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던가에 따라 화폐자본을 고리대자본·은행자본·금융자본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산업자본과 은행자본과는 質的으로 다른 意味의 금융자본이라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설명은 금융자본을 새로운 最高形態의 資本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

(다) 금융자본은 주식회사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며, 산업의 독점화와 함께 정점에 도달한다. 산업의 수익은 보다 안전하고 항상적인 성격을 획득하며, 따라서 은행자본을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대된다. 그런데 은행자본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 것은 은행이며,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것은 은행주식의 과반수 소유자다. 소유의 집적·집중이 진전됨에 따라,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의제자본의 소유자와,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의제자본의 소유자가 점점 더 동일인으로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이것은 대은행이 의제자본에 대한 처분권을 점점 더 획득함에 따라 더욱 그렇게 된다. 산업이 점점 더 은행자본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미 보았지만, 이것은 산업의 거물이 또한 은행의 거물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 그 자체가 발전의 최고단계에서 금융자본으로 되기 때문에, 자본의 거물인 금융자본가는 은행자본의 지배를 통해 국민 총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더 집적·집중시키게 된다. 여기에서도 인적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금융자본』(pp. 322~323)].

이 부분에서는 은행이 산업을 지배할 뿐 아니라 은행과 산업이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다. 은행이 주식소유를 통해 산업을 지배하게 보면, 은행의 대주주는 은행과 산업을 동시에 지배하게 되므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은 癒着·融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金融資本의 形成史이고 概念일 것이다. 힐퍼딩도 이러한 융합에 대해 말한 바 있다.

(라) 금융자본으로서 최고의 자본형태에 도달한 삼위일체……왜냐 하면 산업자본은 성

부이며, 이것이 상업자본·은행자본을 성자로서 낳았고, 화폐자본은 성령인데, 이것들은 셋이면서 금융자본에서는 하나로 되기 때문이다[『금융자본』(p. 315)].

레닌은 위의 (다)와 (라)로부터 금융자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 있다.

생산의 집적과 집중, 이로부터 생기는 독점, 그리고 은행과 산업의 융합 또는 유착— 이것이 금융자본의 형성사이고 내용이다[Lenin(1917, p. 45)].

다시 말해 독점적 은행자본과 독점적 산업자본이 결합한 最高形態의 獨占資本을 금융자본으로 파악한 것인데, 이러한 금융자본은 당연히 獨自的인 價値增殖方法을 가지게 된다.

5. 金融資本의 價値增殖方法

힐퍼딩은 금융자본의 가치증식방법으로 창업자이득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이 창업자이득이 產業利潤(또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산업이윤에서 배당을 뺀 기업가이득)을 資本化한 것이며, 따라서 은행이 산업을 수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의 (나)에 있는 문장 “은행은 산업의 이윤을 금융자본의 지위에서 강탈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창업자이득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은행이 주식을 인수·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시장 판매가격 총액이 주식의 인수·발행가격 총액을 초과할 때 생긴다. 그런데 주식의 시장가격은 주식소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將來收益을 現在價格으로 환산한 것이며, 주식의 발행가격은 주식회사에게 拂入된 產業資本의 規模와 같다. 그러므로 창업자이득에 관한 힐퍼딩의 다음의 계산은 정당하다.

이제 100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한 산업기업을 예로 들고, 평균이윤율은 15%이며, 현행이자율은 5%라고 가정하자. 이 기업은 15만 원의 이윤을 얻는데, 이 15만 원을 연간 수입으로 삼아 5%로 자본화하면 300만 원이 된다. 물론 5%에서는 화폐자본은 확정이자를 낳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증권을 구입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 예컨대 2%라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하고, 또한 이사 보수 등 관리비……를 고려하면, 처분가능한 이윤은 2만 원이 줄어 13만 원이 되고, 주주에 대해 7%가 배당된다고 가정하자. 이제 주식가격은 185만 7,143원 [=13만 원/7%], 사사오입하면 약 19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15만 원의 이윤을 낳기 위해서는 100만 원의 자본만 필요하며, 90만 원은 자유롭다. 이 차액 90만 원은 이윤 낳는 자본을 이자 낳는 (또는 배당 낳는) 자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생긴 것이다. 만약 우리가 (총이윤을 감소시키는) 주식회사의 높은 관리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차액은 수익을 15%로 자본화한 금액(15만 원/15%)과 수익을 7%로 자본화한 금액(15만 원/7%)사이의 차이, 즉 평균

이윤율을 얻는 자본과 평균이자율을 얻는 자본 사이의 차이를 표현할 것이다. 이 차이가 ‘창업자이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이득은 이윤 낚는 자본을 이자 낚는 자본으로 전환시킬 때만 발생한다[『금융자본』(pp. 149~150)].

그러나 다음과 같은 힐퍼딩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창업자이득(주식발행에서 나오는 이득)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윤이나 이자도 아니며, 자본화한 기업가이득이다. 창업자이득은 산업자본의 의제자본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주식발행이득의 크기는 첫째 평균이자율에 의해, 둘째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평균이자율에서 이자를 빼면 기업가이득이고, 이 기업가이득을 현행 이자율로 자본 환원하면 창업자이득이 된다[『금융자본』(p. 244)].

힐퍼딩은 創業者利得의 源泉을 설명하면서 두 개의 전혀 다른 과정을 혼합시키고 있다. 은행이 주식 대금으로 주식회사에 납부한 금액은 산업자본으로서 평균이자율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과, 은행이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고객들에게 팔아 자본을 회수하고 증식시킨다는 사실은 아무런 상호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 은행이 얻는 창업자이득은 주식의 매매차익이며 오로지 고객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레닌은 이 점에서 힐퍼딩이 비마르크스주의자 홉슨(J.A. Hobson; 1902년에 *Imperialism*을 발간함)보다 금융자본의 寄生性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Lenin(1917, p. 92)].

물론 은행이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은행은 배당을 이자 수준으로 감축시켜 평균이자율에서 배당(또는 이자)을 뺀 기업가이득을 자기의 몫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창업자이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음으로 힐퍼딩은 금융자본의 가치증식방법으로 獨占價格의 設定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독점적 결합의 목적은 이윤율의 증대이며, 이것을 달성하는 주된 방법은 경쟁을 제거한 뒤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르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만약 독점적 결합이 경쟁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객관적인 가치법칙이 실제로 관철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까지도 제거하게 된다. 이제 가격은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일정한 크기가 아니라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회계 연습으로 되며, 결과가 아니라 전제로 되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으로 되며, 당사자의 의지와 의식과는 무관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것으로 된다. 이리하여 독점적 결합은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의 집적·집중이론을 확인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을 붕괴시키는 것처럼 보인다[『금융자본』(pp. 325~326)].

힐퍼딩은 獨占價格을 마르크스의 價値理論에 의해 설명하기 위해, “카르텔 가격은 카르텔화하지 않은 산업들의 가격이 생산가격 이하로 떨어진 금액만큼 생산가격보다 높다”(『금융자본』(p. 330))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과는 아주 다

르다.

우리가 독점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격—즉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구매욕과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가리킨다[Marx(1894, III(하), p.953)].⁽⁶⁾

다시 말해 카르텔 가격은 사회 전체의 ‘年間 剩餘價值’를 카르텔산업과 비카르텔산업 사이에 어떻게 分配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카르텔산업과 일반소비자를 어느 정도 收奪할 것인가라는 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카르텔가격이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새로운 진입자를 격퇴하기 위해) 카르텔은 독점가격을 의도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다.

더욱이 카르텔은 독점가격에 의해서만 카르텔 외부의 자본가들을 수탈하는 것이 아니다. 레닌이 지적하고 있듯이, 카르텔은 외부자에게 원료의 공급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외부자에게 노동자를 공급하지 않으며, 위탁판매허가를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카르텔 제품만을 구매하게 하며, 새로운 진입자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가격인하를 실시하고, 신용 제공을 중단하며, 불매운동을 벌인다[Lenin(1917, pp.25~26)]. 이리하여

이제 더 이상 소기업과 대기업이, 그리고 기술적으로 발달한 기업과 낙후한 기업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독점자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기업을 목졸라 죽이는 것이 있을 뿐이다.……지배와 (이것에 결부되어 있는) 폭력이 ‘자본주의의 최근의 발전단계’를 특징짓는 관계다[Lenin(1917, p.26, p.27)].

끝으로, 금융자본은 산업독점과 은행독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가 유망한 어떤 지역과 산업부문을 현재의 수익성에 상관하지 않고 大規模로 開發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본 또는 독점자본이 존재하는가 없는가를 利潤率의 構造的 격차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해 금융자본은 자금력이 강력하고 장기 계획에 의해 가치증식을 도모하므로, 현재의 이윤율 또는 단기적인 이윤율에 보다 덜 민감하다.

6. 金融資本 蓄積의 歷史的 傾向

힐퍼딩은 한 산업에서 카르텔이 형성되면 그 산업 안의 독립적인 기업들은 카르텔에 합병되는 경향이 있고, 기타의 산업에서도 카르텔화가 진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6) Marx(1894)의 권과 페이지는 김수행 역(1990), 『자본론』의 것을 나타낸다.

이 과정의 궁극적인 결과는 총카르텔(a general cartel)의 형성일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는 (모든 생산부문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관에 의해 의식적으로 규제될 것이다[『금융자본』(p. 355)].

더욱이 “총카르텔의 성립 경향과 중앙은행의 형성 경향은 서로 수렴하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발달 그 자체가 사회적 경제의 조직화 문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본다[『금융자본』(p. 335, p. 336)].

물론 이것은 힐퍼딩이 그 뒤 다른 곳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組織된 資本主義’(organised capitalism)의 이론 틀을 제공하며[倉田稔・上条勇 編譯(1983) 참조], 금융자본의 지배는 社會主義로 移行하는 直前段階로 묘사된다. 그러나 총카르텔의 형성이 ‘純粹한 抽象’ 또는 ‘生命없는 抽象’[Lenin(1917, p. 88)]이라는 것은 힐퍼딩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금융자본 자신의 計劃性和 경제 전체의 無政府性이 공존하게 된다고 보았다.

부분적인 규제(바꾸어 말해 한 산업부문을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하는 것)는 산업 전체의 비례관계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산의 무정부성은 개별 생산단위들의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생산단위들의 힘과 능률을 강화시키는 것에 의해서는 지양되지 않는다. 이 무정부성은 결코 조금씩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획적인 생산과 무정부적 생산은 양적인 대립물—다시 말해 ‘계획’을 조금씩 추가하면 의식적인 조직이 무정부성으로부터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환은 생산 전체를 의식적인 통제에 종속시킴으로써 돌발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누가 이러한 통제력을 행사하며, 누가 생산의 소유자가 되는가는 힘의 문제다. 생산 전체를 담당하고 따라서 공황을 제거하는 총카르텔 그 자체는 경제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직은 사회적·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조직은 그 조직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강화될 이해대립이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금융자본』(p. 416)].

레닌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특히 금융자본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고, 특정한 지역과 산업부문의 ‘不均等하고 發作的인 發達’을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무정부성은 더욱 증대한다[Lenin(1917, p. 28)].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와 상품생산 일반의 기본 특징인데, 독점은 자유경쟁의 정반대다. ……그런데 자유경쟁으로부터 생긴 독점은 자유경쟁을 제거하지 않으며, 자유경쟁 위에 그리고 자유경쟁과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매우 심각한 矛盾・葛藤・摩擦을 야기한다[Lenin(1917, p. 82)].

그러나 위와 같은 독점과 자유경쟁 사이의 모순 이외에, 힐퍼딩은 산업자본・상업자본・은행자본을 통합한 금융자본이 國民大衆과 敵對的인 關係에 서게 된다고 말한다.

이제 자본은 사회의 생활과정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단일의 권력으로 나타난다. 이 권력은 생산수단·자연자원·축적된 과거의 총노동에 대한 소유, 그리고 (소유관계의 직접적 결과로) 살아있는 노동에 대한 지배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동시에, 소유는 소수의 거대한 자본가 그룹의 수중에 집적·집중함으로써 자본을 갖지 않은 다수 대중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리하여……소유관계의 문제가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등장하고 있다[『금융자본』(p. 336)].

그런데 레닌은 금융자본에 대한 국민 대중의 적대감이 금융자본의 寄生的 價値增殖方法(예컨대 주식투기·토지투기·고리대) 때문에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金融資本 蓄積의 歷史的 傾向에 관해, 힐퍼딩과 레닌은 한편으로는 경제를 조직화·계획화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 모든 자원을 국민 대중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대중이 점점 더 소유로부터 분리되고 금융자본의 지배와 수탈에 점점 더 얽매이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단계에서는 국민 대중 특히 프롤레타리아는 자유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 아니라, ‘대자본가에 의한 그리고 대자본가를 위한 경제의 의식적인 통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의한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한 경제의 의식적인 통제’[『금융자본』(p. 518)]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7. 맺 음 말

위에서 우리는 힐퍼딩의 『금융자본』에 있는 독점이론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레닌의 『제국주의』와 비교했다. 물론 힐퍼딩은 제 5편에서 금융자본의 대외적 진출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생략했다.

힐퍼딩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독일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은행이 어떻게 산업을 지배하게 되었고, 카르텔과 트러스트는 어떻게 결성되었으며, 이러한 독점적 결합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모시키고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연구했다. 이리하여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 獨占과 金融資本의 연구에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물론 이 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힐퍼딩은 그 당시의 독일 상황에 너무 사로잡혀 독점에 관한 일반이론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금융자본을 ‘최고 형태의 자본’이라고 부르면서도 그것의 내용을 정확히 묘사하지 못했다.

한편 레닌은 힐퍼딩의 『금융자본』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독점이 지닌 ‘支配’와 ‘暴力’을 부각시켰다. 물론 『제국주의』는 1914년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독점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본의 가치증식방법의 하나로서 등장한 것이고,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정치영역에서도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그리하여 독점의 이 支配力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지배력은 한편으로는 독점이 자기의 가치증식을 위해 經濟와 政治를 支配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전체를 모든 국민을 위해 計劃化·組織化할 수 있는 條件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측면은 '生産의 社會化 傾向'이지만, 이 측면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힐퍼딩과 같이 '총카르텔'이나 '조직된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측면은 독점이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을 수탈하는 것, 산업 부분들과 지역들 사이에 불균등발전을 야기하는 것, 그리고 국가 정책을 이용하는 것 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독점이 가진 이러한 二律背反的인 性格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독점 단계의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금융자본』의 마지막 장 '프롤레타리아와 제국주의' 또는 레닌이 말하는 '死滅하는 資本主義'라는 관념은 이러한 인식에 의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 880-6374
팩시 : (02) 888-4454

參 考 文 獻

- 倉田稔·上条勇 編譯(1983): 『R. ヒルファディング 現代資本主義論』, 新評論.
Hilferding, Rudolf(1910): *Das Finanzkapital: Eine Studie über die jüngste Entwicklung des Kapitalismus*, Vienna, Wiener Volksbuchhandlung; 김수행·김진엽 공역(1994), 『금융자본』, 세날.
Lenin(1917):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Progress Publishers(1975).
Marx, K.(1894): *Kapital*, Ⅲ; 김수행 역(1990), 『자본론』Ⅲ, 비봉출판사.